

| 2026년 3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|

□ **종합 경기전망: 70.9** ※전국: 79.6 / 경기: 82.6

- 보 합: 섬유 의복(100), 목재 종이(100), 운송 장비(100), 철강 금속(95)
- 부 진: 기타(80)
- 침 체: 전기 전자(60), 비금속(57), 석유 화학(56), 기계 설비(48)

□ **항목별 경기전망**

- 보 합: 자금 사정(103.9), 매출액(99.7), 영업이익(96.1)
- 침 체: 설비 투자(90.3)

□ **기타 조사**

-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에 변동 여부
 - ‘변동 없음(74.8%)’, ‘변동 있음(25.2%)’

◎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 변화 (모두 선택)

- ‘가격·납품단가 인상(24.3%)’, ‘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(18.9%)’, ‘원·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(13.5%)’, ‘생산량·가동률 조정(12.2%)’, ‘원·부자재 재고 확대·선매입(9.5%)’, ‘정책금융·정부지원금 활용(5.4%)’, ‘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(5.4%)’, ‘운송경로 변경(홍해·수에즈 우회 등)(4.1%)’, ‘대체 수출처 발굴(2.7%)’, ‘시중금융 자금 조달(2.7%)’, ‘환율·원자재 헷지 강화(1.4%)’ 순으로 응답.

-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안산지역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여부

- ‘기대하지 않는다’ 51.5% [별로 기대하지 않음(41.7%), 기대하지 않음(9.7%)], ‘기대한다’ 48.5% [다소 기대(46.6%), 기대(1.9%)]

◎ ‘기대하지 않는다’ 고 응답한 이유

- ‘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(27.6%)’, ‘지역 내수·소비 회복 더딤(25.0%)’, ‘규제 제도 불확실성 부담(17.2%)’, ‘고금리 우려 등 비용·자금 부담(13.8%)’, ‘기업 현장 인프라·인력 부족(9.5%)’, ‘기업애로 관련 소통 미흡(6.9%)’ 순으로 응답

◎ ‘기대한다’ 고 응답한 이유

- ‘지자체 재정·금융 지원 확대(지방세 감면,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)(22.1%)’, ‘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(21.2%)’, ‘교통·물류 등 입지 여건 개선 기대(21.2%)’, ‘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거점 조성 기대(15.4%)’, ‘인력·교육 여건 개선 기대(12.5%)’, ‘기업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(7.7%)’ 순으로 응답

○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확대 또는 투자를 계획 여부

- ‘현재로서는 계획 없음(59.2%)’, ‘긍정적 고려 중(지자체 지원, 규제 개선 조건부)(37.9%)’, ‘계획 있음(구체적으로 검토 중)(1.9%)’, ‘사업 축소, 이전 고려 중(1.0%)’ 순으로 응답

○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
- ‘세제 감면·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(22.3%)’, ‘입지·시설·환경 규제 완화(네거티브 규제로 전환)(15.1%)’, ‘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조성(12.8%)’, ‘용지·도로·전력·물류 등 인프라 및 기반 시설 확충(12.8%)’, ‘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(10.9%)’, ‘AI·디지털 전환(DX) 컨설팅·실증 비용지원(9.8%)’, ‘인허가·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(6.8%)’, ‘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인재 유입 환경 조성(5.3%)’, ‘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안정 지원체계 구축(4.2%)’ 순으로 응답